

名分性 · 科学性 · 經濟性에 입각한 철학과 신념을 가져야



現國際大學 學長으로 在任, 後學養成에
盡力하고 계신 金基衡박사

● - 金박사님께서서는 우리나라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서 과학기술행정의 기초를 정립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당시의 회고담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1966년 여름 박대통령각하의 초청으로 귀국하여 경제과학심의위원으로 있을때 일입니다. 아마 66年 12월 중순경인데 대통령께 과학기술발전의 최선의 방도로써, 종합행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함을 건의하였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좋은 안이라고 하면서 먼저 외국의 각료급 과학기술행정 및 정부조직법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국 · 독일 · 불란서 · 서서 등 구라파지역, 인도 일본 등 동남아시아, 미국 등 미주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과학기술 행정실태를 돌아보고 정부조직법중에 과학기술원을 삽입 수정하는 원안을 만들어귀국후보고서와 함께대통령에게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박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에 이 정부조직법안의 심의회의를 청대대에서 가졌습니다. 그때의 심사위원장은 김원태 무임소장관이었습니다.

나는 국가행정은 명분이 서고 경제성과 과학성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경제기획원과 대등한 科學技術院을 구상하였으나 심의도중 국무회의에서 科學技術處로 격하된 점이 유감스럽게 회상됩니다.

과학기술처신설이 삽입된 정부조직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확정되고 내가 1967년 4월 13일 초대 과학기술처장관에 임명되었으며, 1주일후인 4월 21일 과학기술처가 지금의 원자력병원 자리에서 현판식을 가졌는데, 이때 박대통령께서 직접 「과학기술처」의 현판을 걸어주었고 격려치하도 해주었습니다.이날이 후에 과학의 날이 되었지요.

● -당시 누구 보다도 적극적으로 과학기술행정을 위한 종합행정기구 설립을 강력히 주장 · 건의 하였던 것은 과학도였기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과학도이기때문에 관심도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여건을 감안해 볼때, 과학기술의 발전없이는국력배양과 경제발전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었지요.」

● -과학기술자들이 사회과학자들에 비해 폭넓은 면에서 멀어진다는 말들을 하던데요.

「과학자나 공학도가 전공분야에 몰두하다 보면 전문성은 있지만 일반성이나 역사성에 대하여 둔하여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또 과거의 대학교육이 전문분야만 가르치다 보니 종합성, 인간성, 미래성을 가르치지 못한 점도 시인하여야 겠지요. 이와같은 학교교육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이 生涯教育으로 수정한 사람은 큰 인물이 되고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학교측도 교육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 - 오늘의 우리경제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동안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많은 성장을 해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0년의 GNP 80\$에서 81년의 1,500\$ 선의 성장은 정상성장이라기 보다 편중 不均衡성장이며서 보다 不況에 극히 약한 체질이라고 보아 집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이나 정신이 향상하는 질적인 면에 비해 황금만능적 물질주의, 대량생산 같은 양적인 면에서의 성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그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너무 광범위한 문제라서 종합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때문에 원칙적·근본적인 원인에 국한시켜 포괄적으로 지적한다면, 과학성과 경제성과 명분성의 3자가 완전히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중 한가지라도 결여 되거나 조화를 잃고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실패의 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 - 요즘 부조리의 척결, 부정·부패의 일소 등 사회정화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 부조리, 부정,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것은 어쩌면 민족의 역사요, 체질속에, 민족의 교육속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물질만능주의에 현혹되어 욕심을 갖기때문에 사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바로 갖지 못하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 - 특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은 교육평준화정책과 병행해서 천재교육도 필요하며 자신을 잃고 있는 우리산업에게 국제경쟁력을 부여하는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명의 과학자 보다 한명의 "아인슈타인"

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적은 투자로 가장 빨리 과학기술을 기르는 방법의 하나가 天才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88올림픽에 대비해서 스포츠의 천재발굴에 역점을 두는 것과 같은 형태의 교육이 과학계에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 - 과학의 정착화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일반적인 의식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첫째로 객관적인 요소로서 가치관에 대한 기능의 분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둘째로 주관적인 요소로서 "한탕주의 사상"과 "배금주의 사상"을 버리고 일생을 바쳐 후대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겠다는 꾸준한 소신과 철학이 민족체질속에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본(日本)이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작년도 세계발명특허등록이 100만건중 35만건을 차지하고, 미국이 25만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의 출원보다 외국인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늘고있는 현실을 냉철하여야 합니다. 입으로만 과학기술진흥·기술혁신을 부르짖는 사람, 기술개발을 해본적도 없는 인사들이 떠들고 있는 것은 가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몇만건의 발명이 나오도록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여 탁상공론이 안되도록 해야지요. 그방법을 모르면 아는 선배, 선진국에서 배워서 실천하는 겸허한 마음자세와 필요하지 않을까요.」

● - 현대과학의 문제점 나아가 날로 발전해가는 새로운 문명에 대비하는 과학의 입장이랄까요.

「우리가 현실을 어떤 방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미래창조의 관건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아올 시대를 신문명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 신문명의 시대는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결합되는 시대가 될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3자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그 신문명의 형태가 규정지워지리라 봅니다. 이렇게 볼때 이 3자를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것이 현대과학의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담 : 李元睦〉